

북스

Books

‘소설 토정비결’

총 4권으로 재구성



1990년대 초 출간 300만 부 이상 판매돼 베스트셀러가 된 이재운의 역사장편소설 ‘소설 토정비결’이 새로 단장해 독자들을 찾았다.

첫 출간 당시 3권과 2부적인 ‘당귀’(전5권)를 합쳐 총 4권으로 재구성했다.

1부 ‘토정 이지함’에서는 ‘토정비결’의 저자로 알려진 이지함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그려냈으며 2부 ‘토정의 후예’에서는 토정의 애민정신을 계승한 후정과 유정, 정유가 환난 속 민초들을 구제해 나가는 이야기가 재미나게 펼쳐진다.

〈해남·각권 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詩로 피어난 섬진강의 봄 꽃 바람 햇살

수양버들

김용택 지음

“비, 색색의, 불비/수양버들이 비를 맞고 휘날어졌네./휘날어진 가지에 푸른 물 내려오네./저렇게 휘날어져 어찌자는 것이나. 세상의 푸른 속살이여!”(‘색의’ 중)



김용택(61) 시인의 신작 시집 ‘수양버들’은 표지 그림 ‘마상정영도(馬上驚鷹圖)’처럼 새 울고 여기저기 꽃들이 화사하게 만개한 봄날의 풍속화 같다.

지난해 정년한 후 전복 임실 고향에서 한가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 시인은 지난 25일 전화인터뷰에서 “여인의 치맛단처럼 강물에 끌릴 듯 드리워진 수양버들, 말 위에 앉아 나무 위 새소리에 살뜰 고개 돌린 선비의 모습이 담긴 표지 그림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며 “꽃잎이여, 여행하고 글쓰는 게 일상”이라며 근황을 전했다.

시집 곳곳 섬진강에서 피지는 봄 내음이 가득하다. 시인은 “겨져 피는 꽃은 없다”(‘성우에게’에서)며 즐거워하고 또 꽃을 “정열의 화신”(‘달콤한 사랑’에서)이라고 노래하기도 한다.

하지만, 농밀하고 찬란한 춘경 속의 시인. 먼 산을 바라보며 섬진강변 꽃길을 거닐던 시인에게 서러움과 슬픔이 불현듯 밀려온다.

김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트럭 잡화장수가 된 제자의 딸 얘기를 통해 대물림되는 양극화 문제 같은 걸 다뤄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를 쓰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시인의 가

슴 환련 자리잡은 슬픈 한 자락은 농촌의 가난이었다. 농촌 초등학교에서 그가 38년 간 걸리던 꽃말을 같은 아이들, 그가 가르친 아이가 아버지가 되어 딸을 낳았지만 농촌은 여전히 빈궁하다.

도시로 간 아버지는 ‘도시의 작은 골목길 1톤 트럭 잡화장수’가 되었고, 시인이 가르쳤던 그 잡화장수의 딸 세희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란다. “세희가 달려와 내 손을 잡는다./따뜻하고 작은 손./가난은 배고픈 봄날처럼 길고 멀다...내 어찌 눈물을 감추랴”(‘세희’ 중)

“저 꽃 생사람 잡겠어요 내가 시방 흘렸지요 이러다가 자지러지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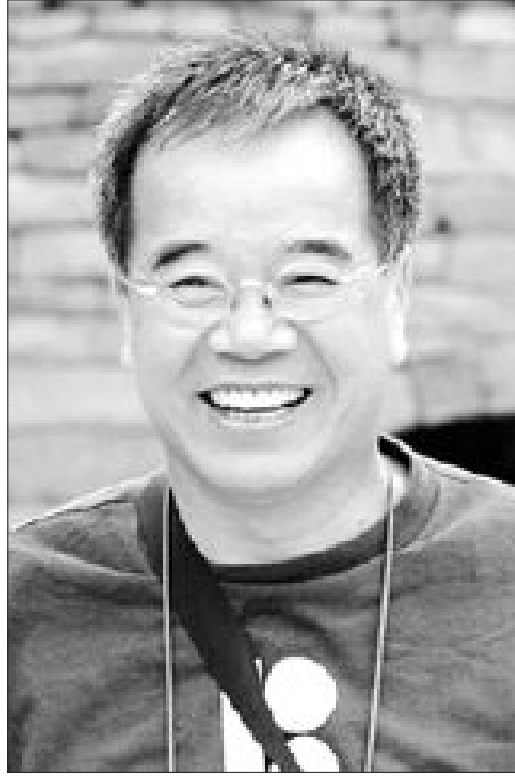
일요일이 되어도 일기장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세희. 눈 어두운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신해 세희의 손톱을 깎아주는 시인은 목이 맨다.

“까아도, 깎아도 길이나는 손톱처럼/가난은 잘리지 않는다.”(‘손톱’ 중)

또 시집에는 “봄이다. 한 가지로 너무 오래 살았다”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이제 생의 높은 고비를 넘어선 시인의 회화과 상념이 짙게 묻어난다.

“내 나이/올해로 이순(卅八), 세상물정 모르는 바 아니나, /시 몇편 써놓고/밖에 나가니/세상 부러울 게 없다./너희들은/내가 이렇게 잠시나마/글없이 너그러워지는 그 이유를 모를 것이다. /내 나이/이순, 살아온 날들을 지우려는 뜻이다.”(‘이순’)

약간의 주제 변화가 있기는 하나 이번 시집 역시 가장 정겹고 빙그레 웃음이 나는 흥겨운 시편들은



고향 마을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암시양반” ‘옥희’ ‘폐계’ 같은 시들은 고향인 달밤에 울려 퍼지는 노랫가락처럼 김용택 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스한 그리움을 선사한다.

‘전업시인’이라지만 김 시인은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있다고 한다. 김 시인은 “기후변화협약과 제3세계 아동의 기아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향 집매마를 사들여 야기와 초등학교 재민시절 아이들과 학교생활을 담은 산문집 2권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비·8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걷는 것이 쉬는 것이다

김산환 글·사진

정신을 여여 돌아가는 세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느리게 사는 삶’에 주목하고 있다. 여행도 마찬가지.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것도 좋지만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품어보고, 사색에도 빠져보는 ‘걸기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좋은 길라잡이다. ‘사라져 가는 오지 마을을 찾아가서’ 등 테마 여행을 떠나는 여행 전문 작가 김산환씨가 오랜만에 출간한 ‘걷는 것이 쉬는 것이다’는 걷기 좋은 우리 길을 소개한 훌륭한 안내서다.

필요한 물품을 챙겨 넣은 배낭과 반나절을 무리 없이 걸을 정도의 체력을 갖춰야 이 책 저자가 수

“강추” 걷고 싶은 우리 옛길 23곳

차례 답사하며 꼼꼼하게 소개한 길을 따라 여행을 떠나보자.

저자가 소개한 23개의 길은 옛길 박물관이 추천하는 ‘걷고 싶은 우리 길’이기도 하다. 여행의 테마는 크게 세가지다. 물과 고개와 사람.

“물”을 따라가는 길은 보리밭과 유채꽃이 어우러진 봄날의 완도 청산도, 1시간이면 다른 세상에 온 듯한 황홀감을 전해주는 제주 ‘다랑쉬 오름’, 자연이 빛아놓은 주산지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청송 주왕산 등이다.

“고개”를 넘어가는 길은 눈꽃이 아름다운 평창 대관령 옛길, 철쭉과 수국과 편백나무가 어우러진 순천 조계산 굴복재, 은빛 억새바다 밀양 재약산 사자령 등이다.

마지막 ‘사람’을 만나는 길은 고창 선운산, 해남 두륜산, 강진 만덕산, 장성 축령산 등을 찾아가는 길

이다. 책을 읽고 난 후 직접 그 길을 걸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지도와 코스를 실었다. 별 갯수(1개~5개)를 활용, 코스 난이도를 설명했으며 걷기 좋은 계절을 소개했다. 길은 언제나 그 곳에 있지만 풍경과 운치를 ‘제대로’ 만끽하려면 그때를 알고 가는 게 훨씬 좋기 때문이다.

그밖에 해당 지역의 지도, 먹거리, 볼거리, 숙박 시설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곳곳에 살랑살랑 나들이를 다녀오면 좋을 듯하다. 가파른 행복한 순간이 ‘점심시간’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먹는 재미도 만끽할 수 있도록 만난 도시락과 간식 찜기는 걸 잊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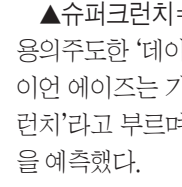
〈실천문학사·1만 4천900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새책



▲베를린 포플러나무=세계 20여개국에 소개된 노르웨이 여성 작가 안네 B. 라케의 베스트셀러 소설. 노르웨이의 농장마을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뒤뜰 가족사를 그리고 있다. 물질만능주의, 동성애, 친구사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통찰했다. 〈해남·1만2천원〉



▲슈퍼크런치=경제전문가도 ‘갑’못잡는 예측불허의 시대, 이제 응의주도한 ‘데이타’로 헤쳐나아가야 할때다. 예일대 경영대학 교수인 이언 에이즈는 기존의 전문가를 대체할 이 통계전문가들을 ‘슈퍼 크런치’라고 부르며 통계학적 경영기법을 고찰하고 사회 전반의 혁신을 예측했다. 〈북하우스·1만5천원〉



▲심리학 생활의 지혜를 발견한다=사람의 속내는 가능하기가 참 힘들다. 책은 ‘임신기간의 스트레스는 태아에 해로운가’, ‘누가 시키는 일은 왜 하기 싫을까’ 등 평소 궁금했던 인간의 심리 관련 지식을 59개 주제로 나눠 설명했다. 〈북울·1만5천원〉



▲가칠한 재석이 사라졌다=불량사원에 몸담고 있는 가칠한 심대 ‘재석’이 사회봉사를 하면서 깨닫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고졸육체가 낸 청소년 성장소설로 가정불화, 학교폭력,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차별받는 청소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다. 〈애블북스·1만원〉



▲다보스 리포트 위기 이후 세계=지난 2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현장에서 만난 세계 석학·기업인·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취재한 내용을 담았다. 위기 후 글로벌 경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한 해안을 제시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사·1만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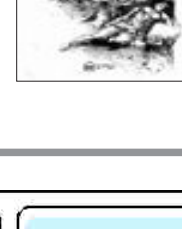
▲꽃피는 계절 결실 없는 가을=꽃피어 없으면 농업도 식량도 없다. 환경 전문가인 작가 로완 제이콥슨은 ‘꽃피는 실종사건’을 통해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를 예측해 인간들에게 다가올 환경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에코리브르·1만6천원〉



▲난 네 뒤에 있었어=‘밤의 피크닉’, ‘삼월의 붉은 구름’ 등 미스터리, 판타지, 호러를 넘나들며 다양한 스타일의 장르소설을 선보여온 일본 작가의 온다 리코의 단편집. 기발하고 거침없는 상상력으로 무장한 열다섯 편의 색다른 단편이 수록됐다. 〈노블마인·1만2천원〉



▲굿바이, 찰리=네덜란드 작가 스타 반 엘더런에게 작가로서 명성을 안겨준 청소년 성장소설. 심대를 통과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통찰력 있는 물음과 울림을 전한다. 과장되지도 미화되지도 않은 두 소년의 우정을 그린 스토리가 잔잔한 감동을 준다. 〈뜨인돌·9천500원〉



▲구데 나흐트! 달콤한 잠으로의 여행=최악의 불행에 빠져 온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독일작가 디트마르 비트리히의 책은 단순해 깊은 잠으로 이끌어줄 불면치료제 같은 책이다. 그가 엄선해 놓은 작품들의 평온함 속이라면 오늘날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드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좋은책 만들기·1만1천원〉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급 매물 중개 전문)

공시지가 2억 매매가 1억 2천 만원

- ▶ 상업지역 130P 삼각동
- ▶ 공시지가+건물과표 13억 매매가 7억 5천
- ▶ 45m도로 접 목욕탕 및 복합상가+주택 북구 대 220p 건 400P
- ▶ 분양가 8억 아파트 1300세대 상가 매매가 2억 5천
- ▶ 35m도로 접 1층 상가 건물 약 100p 땅 지분 93p 한의원 내과 적합
- ▶ 공시지가+건물과표 6억 매매가 3억 5천
- ▶ 현재 한의원 경영 중 대 130p 건 230p 상업지역
- ▶ 공시지가+건물과표 7억 매매가 4억 2천
- ▶ 대 100p 건 300p 상업지역
- ▶ 상업지역 땅 약 95p 공시지가 3억 5천 매매가 2억 4천
- ▶ 30m 도로 접
- ▶ 강정가 3억 8천 매매가 2억
- ▶ 장성 대 270p 건 180p
- ▶ 1층 초점 6만 별도 주택 2동
- ▶ 2층 사무실
- ▶ 32억 빌딩급매
- ▶ 대 200p 건 450p
- ▶ 보 8억 월 2350만원 월 13억 포함
- ▶ 강정가 46억 매매가 24억
- ▶ 빌딩급매 대지 500p 건평 1000p 지하 1층, 지상 5층 전세공실
- ▶ 화순주유소급매
- ▶ 대 600p 세차시설 카센터 주유기 12대
- ▶ 매 12억 용자 6억 포함
- ▶ 화순, 절터, 요양원, 필장부지
- ▶ 9500p 현재 활동장 창고관리실
- ▶ 주택조경수 식재 딱 4억 5천
- ▶ 장성 임야 사슴목장, 필장
- ▶ 100000p 4억 7천

☎ 공시지가 이하 급 매물 접수 환영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수원지구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토지매매 상가·건물매매

- ▶ 공산구 상가 동 2738㎡ 대면매 매가 28억
- ▶ 공산구 토수동 4145㎡ 매가 8억
- ▶ 수원지구 333-1(평의변경가능) 80㎡ 대면매 상가동, 3연도로
- ▶ 수원지구 아파트 빌딩지역 정문 입구 상업용지 500㎡ 땅 210만
- ▶ 수원지구 단일권역 170㎡대 정문 앞 2층 35.5㎡
- ▶ 주차장지 330㎡ 3.3만당 450만원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 수원지구 중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 약국, 전시장, 안경점, 부동산, 이동통신업
- 2-5층 : 병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이비인후과 등 임대중점수 다량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 1층 파파마켓 임점확정
6-8층 :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인 확장

○ 수원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

대표: 송규 (영인등록번호 16-07-20)

전 호남대학교 총장(대통령 상임위원) / 전 호남대학교 총장(대통령 상임위원) / 전 호남대학교 총장(대통령 상임위원)

☎ (FAX) 383-5221 ☎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상무대공인중개사

▶ 빌딩(임대용, 투자용)

- ▶ 상무지구 토지 120평 건물 554평 보증금 2억/월세 2000만원-매가 32억
- ▶ 토지 200평 건물 725평 보증금 37억/월세 1,700만원-매가 32억
- ▶ 토지 600평 건물 1,300평 보증금 37억/월세 3,000만원 용자 12억 매가 78억
- ▶ 토지 300평 건물 970평 매가 68억
- ▶ 현금 5억으로 사무나 헬스클럽 운영할 수 있음

▶ 토지(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회사사육 및 병의 학원부지 등))

- ▶ 2,800㎡(850평) - 매가 1,300만원
- ▶ 727㎡(220평) - 평당 1,200만원
- ▶ 450㎡(138평) - 평당 850만원
- ▶ 833㎡(250평) - 평당 1,250만원
- ▶ 611㎡(185평) - 평당 680만원

▶ 기타용도

- ▶ (농장) 그라블로드 73,000㎡(2만2천 평) 평당 9만원 (중산층)
- ▶ (장동) 주거지역 3,760㎡(1,140 평) 평당 40만
- ▶ (전원주택지) 화순서성리 전원주택지 분양 평당 65만원 (18세대 중추 인 주택으로 적합)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신축), 임야, 치사생업 주택지 등 각종 권역, 임대용, 금융업, 병원, 사무, 세무, 학계, 건축사,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

▶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

☎ (FAX) 225-2685 ☎ 011-605-7777 *광주 전남권 경매 전문

번영공인중개사

모텔

전문업종 신축모텔, 구모텔 무인모텔, 사우나 고시텔, 원룸 독서실, 펜션 전문컨설팅 부지, 설계, 허가 시공, 건설, 리모델링 시설, 비품, 영업상담 임대물건, 임차인 매도물건, 매수인

★ 24시간 접수상담 ★

☎ (대) 062)531-4665
상 담 062)515-0030
동림2지구동림병원앞

대인동심일부동산

☎ (대) 225-1144, 5218 ☎ 011-602-2532
(영주역 인근 신촌역 인근 대인동 상사센터 내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울 켈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원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